

‘영웅 vs 아바타’ 설레는 극장가



‘아바타2’ 14일 한국서 세계 첫 개봉 제작진 오늘 내한 기자회견 뮤지컬 영화 ‘영웅’은 21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거사 등 다뤄 대작 잇단 개봉에 극장가 ‘활기’

바타 2’ 주역들이 내한해 한국 팬들을 만난다. 존 랜도 프로듀서와 배우 샘 워싱턴, 조 셀다나, 시거니 위버, 스티브 랭드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이들은 9일 내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블루 카페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하며 작품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바타 2’는 2009년 개봉해 글로벌 흥행 1위 자리를 지켜온 ‘아바타’의 후속작이다. 13년 만에 베일을 벗은 이 작품은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 분)와 네이티리(조 셀다나)가 이룬 가족이 겪는 위협, 이를 이겨내기 위해 떠나야 하는 여정과 전투 등을 그린다.

‘아바타’는 개봉 당시 3D 신기술을 접목해 빼어난 영상미와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한 실재감을 제공하며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첫 외화에 등극했다.

‘아바타 2’에서는 전작에서 보지 못했던 수중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크리처(생물)들이 등장한다. 캐머런 감독은 “사막, 극지방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3D 등 특별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갑작: 매버릭’ (‘갑작 2’) 사례처럼 특별관 ‘N차 관람’ 열풍을 일으키며 흥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GV의 경우 팬데믹 기간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새로운 3D 안경을 마련했다. 앞선 관객이 썼던 것을 소독 후 재사용해왔던 기존 제품과 달리 관객이 극장에서 사용한 제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바타 2’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작품은 한국



뮤지컬영화 ‘영웅’이다. 21일 관객을 찾는 ‘영웅’은 한국 최초 ‘쌍천만’ 감독인 윤제균 감독이 ‘국제시장’ (2014)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동명의 창작 뮤지컬을 각색한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까지 과정과 순국을 다룬다.

주인공에는 원작 뮤지컬 초연부터 시작해 13년째 안중근을 연기해 온 배우 정성화를 내세웠다. 그 외 인물에 김고은, 나문희, 조재윤, 박진주 등을 캐스팅했다.

김형호 영화시장분석가는 “‘아바타 2’는 시각적 측면, ‘영웅’은 뮤지컬 영화라는 점에서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가 두 편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영화관 시장 전체는 코로나19 이전의 12월만큼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올 연말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 2’)과 ‘영웅’ 등 대작 두 편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그간 침체기를 겪었던 극장가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

극장들은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아바타 2’ 개봉에 앞서 3D 상영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특별관을 새로 단장하는 등 관객 맛을 채비에 들뜬 분위기다.

8일 극장가에 따르면 ‘아바타2’는 오는 14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 관객을 찾는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바타 2’는 이날 오후 1시 23분 실시간 예매율 50.1%로 1위를 기록했다. 예매 관객수는 16만 3000명이다

개봉에 앞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을 비롯한 ‘아

영화관서 즐기는 명문악단 신년음악회

베를린 필 다음달 1일·빈필 2일...베르디·슈트라우스 곡 등

세계적인 명문악단인 베를린 필하모닉과 빈 필하모닉의 송년·신년음악회를 국내 상영관에서 즐길 수 있다.

1월 1일 오후 7시 상영되는 베를린필의 송년 콘서트 ‘갈라 프롬 베를린’은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 함께 한다.

카우프만은 2006년 ‘라 트라비아타’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 데뷔한 뒤 현재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 캐스팅 1순위 테너로 활약 중이다. 공연에서는 베르디, 잔도니아, 지오다노, 마스카니의 곡들과 함께 영화 ‘대부’의 OST를 작곡한 니노 로타의 초기 작품이 연주된다.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2일 오후 7시 상영되는 빈필 신년음악회는 1941년부터 매년 1월 1일에 열리는 유서 깊은 클래식 콘서트로,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생동감 넘치는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세계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지휘는 오스트리아의 거장 프란츠 벵저프스트가 맡는다. 슈트라우스 일가의 곡뿐만 아니라 작곡가 프란츠 폰 주페, 요셉 헨메



빈필 지휘자 프란츠 벵저프스트

스버거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빈 소녀 합창단과 빈 소녀 합창단이 함께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연합뉴스

왕과 당돌한 여사기꾼의 로맨스

MBC 수목 사극 ‘금혼령’

사랑하던 세자빈을 잃고 실의에 빠진 조선의 왕이현(김영대 분). 새로운 세자빈을 들이기 위한 간택령과 함께 백성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령을 내린다.

7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금혼령 때문에 백성들은 사랑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는데, 사기꾼 소랑(박주현)은 이 기회를 틈타 돈 벌 방법을 모색한다.

그는 남몰래 혼인할 방법을 알려주다가 현행범으로 금부도사에게 붙잡히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내뿜은 말 때문에 급기야 왕 앞으로 끌려간다.

수요일 첫 전파를 타는 MBC 새 사극 드라마 ‘금혼령’은 왕이현 앞에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할 수 있는 착한 사기꾼 소랑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연출을 맡은 박상우 감독은 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조선에 7년간 금혼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하는 발칙한 상상으로 시작됐다”며 “정통 사극보다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금혼령’만의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금혼령’은 원작을 집필한 천치혜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고종 논란을 피하고자 지구와 달은 행성 속에 있는 조선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박 감독은 “고종 문제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연기하길 원해서 멀티버스 소재를 넣었지만, 기본은 지켜야 했기에 자문 교수님을 밥맛으로 괴롭혔다”며 “배우들이 인사하는 방법, 문 어는 방법 등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익혔다”고 밝혔다.

‘금혼령’에서는 사극에서는 처음 보는 배우 박



드라마 제작발표회.

주현, 김영대, 김우석이 미묘한 삼각관계로 호흡을 맞춘다.

왕이현은 활달하고 밝은 성격의 소랑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금부 도사 이신원(김우석)은 점점 가까워지는 둘을 만발치에서 지켜보며 애절한 마음을 삭인다.

박주현은 “대본을 볼 때부터 소랑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푹 빠져들었는데, 맡은 청산유수와 눈치가 백단”이라며 “마음먹은 바 그대로 이루는 아주 멋진 여성”이라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왕이현을 연기한 김영대는 “감정의 격차가 큰 인물이라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고, 김우석은 “이신원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편이 아니다 보니 시청자들이 감정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강수연상’ 첫 수상자는 배우 문근영

여성영화인 모임 여성영화인상 신설 남녀·연기·스태프 구분 없이 수여

여성영화인모임은 올해부터 여성영화인상에 신설된 ‘강수연상’ 수상자로 배우 문근영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1999년 영화 ‘길 위에서’로 데뷔한 문근영은 영화 ‘장화, 홍련’ (2003), ‘여린 신부’ (2004), ‘사랑따윈 필요없어’ (2006), ‘유리정원’ (2017) 등에

출연했다.

강수연상은 아역배우로 시작해 50여 년간 연기자로 활동하며 한국영화 위상을 높인 고(故) 강수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남녀 구분 없이 영화 산업 각 분야 연기, 연출, 시나리오, 제작과 스태프 부문에서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은 오는 15일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나주시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참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후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리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등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